

# CREATION

##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동성애(Homosexuality) 시리즈(1)

## 과학으로 결정된 문제일까?

지난 5월 오바마 미 대통령의 동성결혼 지지 표명으로 다시 한 번 미국 내 동성결혼 법률화에 대한 이견이 표면화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만 보더라도 여론이 찬성(52%), 반대(43%)(Washington Post, May 18, 2012)로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운 양상을 보여주었다.

심각한 문제는 성경을 교리로 채택하고 있는 교회와 크리스천조차도 동성결혼에 대한 입장에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교단과 교회에 따라서 찬성, 반대, 무관심 등 다양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크리스천 2세들의 경우 교회에 상관 없이 그 자세가 더

욱 너그럽다. Creation Truth에서는 앞으로 동성애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볼 예정이다. 네 번에 걸쳐 다루겠는데, 먼저 “과학으로 결정된 문제일까?” 즉 증거인 측면이다. 둘째는 “동성애의 결과는?” 열매에 대한 부분이다. 셋째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가?”라는 성경적 입장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를 종합하고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먼저 생물학적 접근을 보자. 과연 생물학적으로 남녀의 구분이 어려운 것이지, 만약 남녀가 어렵다면 이것이 동성애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 하는 문제이다. 객관

적 차원에서 볼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적 구분이 없는 애매한 상태로 태어났다면 그 행위에 대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에 동성애에 대한 연구는 동성애자가 ‘처음부터 생물학적으로 순수한 동성애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대로 받아 들여져야 되는 하나의 부류’임을 보여주려는 추세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동성애자들은 생물학적 설명을 환영하며 최근에 실시된 동성애에 관한 생물학적 설명들을 환영한다”는 Birke 표현은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



2012년 5월 14일 뉴스위크 표지

생물학적 시도에 대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거의 대부분의 연구들은 남녀는 쉽게 구분된다는 쪽에 편을 든다. 다음 Science 지에 게재된 논문들이 이를 잘 말하고 있다. “성적 취향에 대한 생물학적 기초를 세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런 노력들은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간의 어떤 일관된 차이점을 확립하는 데 실패했다— 세포유전학, 내분비학, 신경해부학 상의 방법 등...” “타고 날 때부터 동성애를 하고 있다는 생물학적 특성이 존재할 것이라는 증거들에는 결함이 있다”<sup>3</sup>

### 성(Sex) 발달의 이해

성의 결정은 일차적으로 유전적으로 일어나며 그 발달은 호르몬에 의해 조절된다. 정상적인 경우 남자의 수정란은 XY, 여자의 수정란은 XX의 성염색체를 갖게 된다.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시작해서 자라갈 때 처음 한 달간은 구조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정상적인 경우 Y 염색체에 있는 일련의 유전자들이 발현되어 두 가지 작용을 동시에 하는데, 하나는 남성으로 발달하도록 돕고 다른 한 편으로는 여성으로 발달하는 것을 억제한다. 이 유전자들은 남성 호르몬의 농도를 조절시키는데 여성으로 발달되기 위해서는 이 호르몬들이 충분히 낮은 상태를 유지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유전적으로 결정되었을지라도 성 발달 과정 중 호르몬의 작용이나 조절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날 경우 다른 성으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비정상적인 예들

남자의 수정란의 Y 염색체에 있는 일련의 유전자들 중에 정소결정인자(TDF, testis determining factor)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남자의 수정란은 XY, 여자는 XX의 성염색체를 갖지만, 만약 정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TDF 유전자가 X 염색체로 재조합 되어 들어가게 되면, XX의 성염색체를 가진 수정란이지만 남성이 되고, 반대로 XY 염색체를 가졌어도 여성이 된다. 이런 예들은 다른 사람보다 여성 운동선수들의 경우에 더 많이 발견 된다. 한 보고서는 올림픽에 참가한 여성 6,000 명을 조사 하였는데 12명이 이런 비정상적인 경우가 발생했는데, 이는 500명에 1 명꼴인 셈이다. 이들은 유전적인 남성으로 판명 되어 자격을 박탈 당했다고 한다.<sup>4</sup>

또 다른 비정상적인 예로는 자용동체다. 자용동체란 한 몸에 남성과 여성의 생식 기관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이들은 신체 각 부위의 세포가 XX, XY, 혹은 XXY의 각기 다른 성염색체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XY 염색체만 있는데도 자용동체인 경우가 발견 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XY 염색체를 가졌지만 배아 발생 중 남성호르몬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만들어져 유사 자용동체가 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여성으로 자라나게 되지만 남성 호르몬이 강하게 나오는 사춘기가 될 때 남성 생식기가 발달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이 밖에도 XXY 남성, XYY 남성, XXX 여성 등의 비정상적인 예들이 있다.

이렇게 유전적으로 혹은 염색체 이상으로 성적인 발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들이 성 정체성을 잃고 결혼도 못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동성애자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 동성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성염색체나 자용동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염색체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드물게 일어나는 다른 사람의 예를 들며 자신들의 동성행위를 합당화시킨다면 이는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이재만 부회장 / 최우성 박사

1. Birke, L.I.A., 1981, Is homosexuality hormonally determined? *Journal of Homosexuality* 6(4), Summer.
2. LeVay, S., 1991, A difference in hypothalamic structure between heterosexual and homosexual men, *Science* 253:1034-1037.
3. Rice, G., Anderson, C., Risch, N. and Ebers, G., 1999, Male homosexuality: Absence of linkage to microsatellite markers at Xq28, *Science* 284:665-667.
4. Cummings, M.R., 1994, *Human Heredity*, West Publishing Company, St Paul, Minneapolis, p.125.



## 동성애자 유전자가 존재할까?

1993년에 76명의 게이 형제들과 가족들을 조사한 결과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쪽 영향이 크다는 것이 발표된 적이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성 염색체인 X 염색체를 조사하였고 40형제 쌍 중에 33 쌍에서 Xq28(X 염색체 끝 부분)이란 지점에서 동성애자들의 유전정보가 다르다는 보고가 나왔었다. 미디어들은 이것을 “게이 유전자”라고 발표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었다. 그러나 1999년과 2000년에 발표 된 똑 같은 연구들에서 그 유전정보가 동성애와 전혀 상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지난 2010년, Sanders는 894명의 동성애자들과 694명의 이성애자들이 참가한 대규모 연구를 실시 하였는데, 역시 성적 취향이 모계로부터 유전된다는 주장이 결과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sup>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Sanders는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인 2008년 3월 26일 ABC와의 인터뷰에서는 유전적인 요소를 확신하며 이렇게 말했다. “성적 취향에 유전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미디어 플레이어를 통해 동성애의 정당성만 부추긴 결과만 초래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X 염색체 유전의 표현이 게이 아들 한 명을 둔 어머니, 두 명의 게이 아들을 둔 어머니, 그리고 게이 아들이 없는 어머니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보고된 적이 있었다. 또, 임신 중 모체의 면역 반응이 태아에 영향을 미쳐 동성애 성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 연구로는 큰 상관 관계가 없었다.<sup>2</sup> 또, 시상하부(INAH3 뇌에서 시신경이 교차하는 부위 아래)의 뇌 발달 정도(크기)가 동성애와 연관 되었다는 LeVay의 보고가 1991년에 있었지만, 2001년에 다른 연구자들(Byne)이 조사한 바로는 그런 경향은 있지만 그 부분의 뇌 크기나 신경의 수 차이

가 성적 취향과 통계적으로 유의할만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고했다.<sup>3</sup>

서두에 결론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생물학적인 결과는 동성행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만약 동성에 경향이 100% 생물학적인 것이라면 그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그 원인이 소위 말하는 '게이 유전자' 몇 개 때문이라면 그 유전자들은 아주 쉽게 발견되었을 것이다. 최근 많은 과학자들이 이 분야에서 생물학적인 이유를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세상의 압력 때문에 동성애를 지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시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성적 성향을 유발시키는 유전자가 없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적 취향 발달에 관련 된 생물학적인 요소들로 유전자와 태아기의 호르몬, 뇌 구조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과 자세한 설명은 '아직 잘 모른다'이다. 지금까지 미디어를 통해 발표되었던 유전적으로 동성애를 정당화한 정보들은 대부분 허위 혹은 과장된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일단 이와 같이 발표가 되어버리면 회수되기 어려우며, 많은 사람들은 그 진실여부를 떠나 그 발표된 내용으로 판단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렇다. 동성에 성향은 유전적인 영향보다는 태아 발달 과정이나 출생 후의 환경적인 영향이 더 중요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sup>4,5</sup>

예를 들어 일란성과 이란성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를 보자. 그들이 같은 환경에서 자라난다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성적 취향이 달라진다면 유전적인 것인지 환경적인 것인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유전적인 것 보다는 개인의 환경적인 면이 유전적인 요소보다 훨씬 (2~3 배 이상) 더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9 개의 환경적인 요인들의 예는, 임신 기간과 출생 환경, 물리적 혹은 정신적 충격 (사고, 폭력, 질병 등), 또래 집단, 성적인 경험 등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성적 성향은 타고 나기 보다는 환경에서 만들어 진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재만 부회장 / 최우성 박사

## 열려있는 탐사여행

아래 탐사여행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창조과학선교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알려드립니다.

### ●7/2-5(월-목) 3박4일(감사한인교회 주관)

LA- 모하비 사막- 그랜드캐년- 글렌캐년 댐-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  
인도: 이재만 선교사

### ●7/30-8/2(월-목) 3박 4일(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주관)

LA- 모하비 사막- 그랜드캐년- 글렌캐년 댐-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  
인도: 이재만 선교사

### ●14차 유학생 탐사여행: 2012년 8월 6-8일(월-수) 2박 3일

LA- 모하비 사막- 세도나- 그랜드캐년  
인도: 이재만 선교사

유학생 탐사여행은 서울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이재훈)와 알바인 온누리교회(담임 목사 권혁빈)가 후원합니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박사 후 과정에 있는 학생과 배우자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학생 내외도 참가 가능합니다.

참가 대상 및 참가비: 유학생과 배우자(\$100), 유학생 가족(\$320)



## 동물에서 동성행위를 엿볼 수 있는가?



동성애와 진화론의 관계

동성애자들의 리더들 가운데 동성행위의 타당성을 동물에서 찾으려 하기도 한다. 실제로 동물들은 교배 시기가 아닌 경우에는 암컷끼리, 수컷끼리 따로 모여 살기도 한다. 그들은 이런 모습을 통해 동성애를 합당화하고자 한 것이다. 동성애 지지자인 Smit는 이렇게 말했다. “동성행위는 연구된 대부분의 동물에서 관찰되어왔다. 포유류와 같은 고등 동물로 갈수록 겉보기에 더 많은 동성행위를 보게 된다.”<sup>1</sup>

그러나 위와 같은 언급은 동물들에 대한 아주 제한적인 이해에서 온 것이다. 실제로 동물들이 같은 성끼리 모여있다고 할지라도,

그들간에는 동성간에 어떤 성적인 동기도 없으며, 더욱이 성관계는 전혀 갖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관찰 결과는 동성행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어떤 동물도 없다는 점이다.<sup>2</sup>

그렇다면 이들은 왜 동물에서 자신이 행하고 있는 동성애의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보면 잠재된 진화론적 세계관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동성애자들의 글을 보면 직접적으로 어떤 경우는 간접적으로 표현될 때도 있는데 바로 진화론에 대한 언급이다. “동성애나 이성애의 기원에 대한 이론은... 진화론적 생물학과 성 분화의 발생학에서 그 기원을 갖는다.”<sup>3</sup> 이 글을 쓴 Money도 성은 진화되는 과정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동성애의 당위성을 떠나가고 있다. 왜냐하면 결국에 동성애도 다른 도덕적인 문제와 마찬가지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신의 정체성(identity) 문제이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글 안에서 진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도 한데, 이는 저자가 진화라는 실체를 스스로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진화론적 세계관을 사실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성에 대한 기원을 진화론에서 찾을 수 있을까? 진화론자들이 진화과정으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자연선택이며, 자연선택을 받은 생물들이 더 많이 살아 남는다는 것이 자신들의 이론이다. 자연선택으로 보자면 동성애자가 선택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동성애자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생산 능력이 없다! 진화론자 대부분이었던 Gould는 “결론적으로, 생존과 재생산의 유리함 외에는 판단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sup>4</sup> 진화론자인 Ruse도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동성애에 관한 모든 진화론적 이론은 부적당하고, 문제가 있다.”<sup>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진화론자들이 동성행위를 옹호하고 있다는 것과 동성애자들이 진화론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진화론자들은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남녀의 성 구분도 진화의 과정인 자연선택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성적충동도 그런 경쟁과 선택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직도 남녀의 성 분화를 설명하는 어떤 타당한 진화론적 이론도 없다.

진화론자들은 동성을 이성보다 더 진화된 상태로 보지는 않는다. 처음부터 이성으로 나뉘었다면 이는 진화론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동성이 진화과정을 거쳐 이성으로 되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성적충동도 생존경쟁의 원리인 이성간의 성적 선택(sexual selection)인 경쟁의 과정으로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성의 구분이 없던 상태에서 분리되어 암수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론은 각 동물의 암수의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없다. 특별히 사람은 왜 1:1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설명하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은 진화는 진화자체로 모순되고 이 모순된 이론에 성 분화를 설명해야 하고 여기에 동성애를 꿰어 맞추려는 모순과 모순으로 가득 찬 불가능한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동성애가 진화론과 깊이 연관되었다는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사고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동성행위는 단지 오늘날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 모든 사회에도 있었다. 구약시대부터 동성행위에 대한 경고를 해왔던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창 19장, 레 18:22, 20:13). 그러나 현재와 같은 동성애자에 대한 관점은 1800년도 말부터 근거를 둔다. 그 이전에는 동성애자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했냐?”라고 질문을 던졌었다. 즉 이들이 한 것이 하나의 성적 취향으로 “옳으나, 틀리냐?”가 초점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잘못된 성적 취향으로 여겼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누가 이런 일을 했냐?”로 질문이 바뀌었다. 즉 동성애자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분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Foucault의 표현은 이를 잘 반영한다. “그때까지는 동성애자들이 잠정적인 정신이상자에서 지금은 하나의 종(species)이 되어버렸다.”<sup>6</sup> 성경은 동성애를 이를 행하고 있는 어떤 사람으로 분류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릇된 성적 취향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1800년 중반에 지구 상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현대사에 가장 큰 획(!)을 그은 책이 출판되지 않았던가? 바로 1859년에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과 함께 진화론이 대두된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경을 떠나 진화론적으로 모든 것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다. 진화론적 흐름을 타고 결국 동성애도 타락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보호받아야 하는 특별한 존재로 둔갑한 것이다. 이미 언급했던 동성애자들이 생물학적으로 당위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동물을 보며 자신의 행위를 합당하다고 말하려는 것도 그 근본을 보면 내면 깊숙이 스며있는 진화론의 표출인 것이다.

일단 동성애가 그릇된 ‘성적 취향’에서 ‘동성애자’라는 인정해야 하는 존재로 분류되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권리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다음 호부터 다룰 내용이다.



## 탐사여행

### 큰 숲 목회자와 안산동산교회

지난 5월 10-17일 8일간 큰 숲 목사님들과 안산동산교회(담임목사 김인중)에서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랜드캐년을 포함한 서부 3대 협곡뿐 아니라 Death Valley와 요세미티를 통한 빙하시대와 Sedona를 통한 세계관까지 창조과학 전 과정이 포함된 탐사여행이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모두 이 시대에 창조과학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지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에 신앙 전수를 어떻게 창조과학을 통해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안산동산교회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에 창조과학 탐사여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국제 가정교회 사역원 이사회

지난 5월 22-25일 국제 가정교회 사역원(대표 최영기 목사) 이사 목사님 내외분들께서 탐사여행에 참석하셨습니다. 가정교회는 최영기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계신 휴스턴 서울교회를 시작으로 일어난 교회의 회복을 추구하는 사역입니다. 섬김의 삶을 통해 전도하여 영혼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석 목사님들께서는 가정교회의 지적인 면을 매우기 위해 창조과학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셨습니다. 앞으로 가정교회에서 진행하는 집회와 성경공부에 창조과학이 어떤 식으로 도입될지 의견도 나누었습니다.

### 시애틀 형제교회

매년 참석하는 시애틀 형제교회(담임목사 권준)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탐사여행에 참석했습니다(지난 5월 28-31일). 이번에는 형제교회뿐 아니라 시애틀 지역의 다른 교회에서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자신의 감동이 2세대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열어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ANC 온누리교회

매년 메모리얼데이에 떠나는 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유진소)의 탐사여행은 대부분 가족들 중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부모님을 탐사여행에 보내 주신 경우가 많아 은혜가 두 배가 되었습니다.



## 창조과학 세미나

파사데나 드림교회(담임목사 이성현), LA 순회 선교단(단장 김용의 선교사), Coffee Break(대표 이명숙 권사) 이상 이재만선교사

갈보리섬기는교회 (Mesa, AZ): 최우성 박사

메이페어 구세군교회 (시카고 지역): 이동용 박사, 김선옥 박사(EM)

시애틀 온누리교회: 김선옥 박사(EM)

## 3기 ITCM-1

ITCM-1이 6월 22일부터 8주간 진행 됩니다. 한동대 학생 4명과 과학교사 1 명 등 총 5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독서와 현장 답사 그리고 성경 공부로 이루어지는 일정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실이 깊이 있게 다루어 지고 참석자들이 건강하고 보람 있게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재정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2012 창조과학 컨퍼런스

7월 6-8일 3일간 진행되는 시카고 창조과학 컨퍼런스는 헬로십교회(담임목사 김형균)에서 어린이부, EM 청소년/장년부, 그리고 한어 장년부가 동시에 진행 됩니다. 강사들과 참석자들이 성경의 창조 사실을 잘 전하고 배워 성경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교회 주소: 665 Grand Canyon St. Hoffman Est., IL 60194; 전화: 847 884 0951



물고기  
기  
와  
요  
나



호주 무루라바 Underwater World의 물고기 아가리

성경에 두 마리의 물고기가 등장한다. 가장 유명한 물고기 두 마리는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 가운데 등장하는 중요 소재로 쓰인 물고기다. 또 다른 두 마리의 물고기도 앞의 두 마리 물고기처럼 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물고기로 등장한다. 그중에 한 마리는 창세기 1장 창조 다섯째 날에 창조하신 '큰 물고기'이고 다른 한 마리는 요나를 삼켰던 '큰 물고기'다. 그러나 이 큰 물고기들은 다 같은 물고기가 아니다. 전자는 히브리말로 '탄닌'이란 것인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멸종 된 수룡으로 여겨지고, 후자는 지금도 존재하는 물고기란 뜻을 가진 '다그다. 이 물고기 배 속에서 3일간 있었다는 요나 이야기는 어떤 그대로 사실일 수 있을까?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지금 관찰 되고 지금 실험할 수 있는 실험과학에 의존하는 훈련이 아주 잘 되어 있다. 그래서 학교나 미디어를 통해 늘 배우는 것이 실험과학적인 지식도 있지만 실험과학이 아닌 - 관찰과 실험이 불가능한 - 것들도 무분별하게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런 지식들은 "현재는 과거의 열쇠다! (Present is the key to the past)"라는 잘못된 패러다임에 묶여 있는 특징을 갖는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 된 과거 역사도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은 성경 기록이 사실이 아니란 결론을 스스로 내리게 한다. 창조자의 존재와 창조 행위도, 요나의 물고기도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

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 기록이 아니라고 생각 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39-40).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암시에 요나의 큰 물고기를 등장시키신다. 만약 이 요나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사실일 필요가 없다.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는 BC 800년 경이므로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이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보면 이 시기는 노아홍수로부터 불과 1550년 지난 때로 빙하시대가 끝이 난 후 불과 850여 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우리는 과거 역사의 흔적인 화석들을 가지고 있고 화석이 되지 않은 뼈들을 통해 공룡이 아니더라도 엄청나게 큰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동물들이 노아홍수 이후에도 종류대로 살아 남아 번성하였으며(창세기 9:1) 빙하시대 이후에 멸종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빙하시대 이야기』, 두란노, 2011. 참고). 공룡도 마찬가지지만 그 커다란 동물들은 어느 날 갑자기 멸종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점점 악화 되면서 점점 사라져 갔다. 그러므로 요나 시절에는 지금 볼 수 없는 큰 물고기들이 여러 종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였다. 지금도 사람을 삼킬 만큼 큰 물고기인 상어들이 10여 종이 있다고 한다. 어떤 물고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물고기들 중에 한 마리를 미리 대기 시키셨던 것이다(요나 1:17).

요나의 사건은 수 많은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큰 시험거리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한 가지 시험을 더 얹어 주는데,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있었다는 기록이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 해도 정말 3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아 남을 수 있을까? 피노키오 만화 영화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요나 사건만 아니라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 오병이어의 기적 등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받아 들이려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창세기 1장의 창조자를 반드시 필요로 하게 된다(히브리서 11: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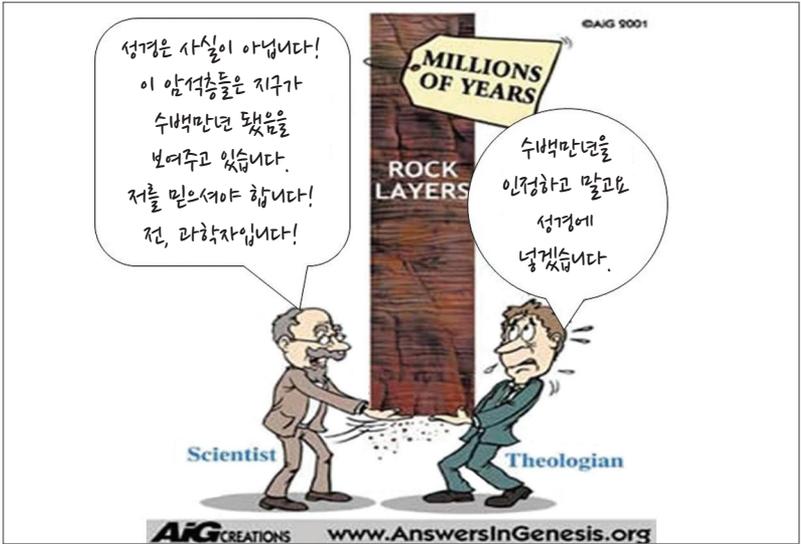
결국 창세기의 창조자와 그 창조가 사실이 아니라면 참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사탄은 창세기 1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데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신학자와 과학자들마저도 자기가 만든 창조 이론에 맞게 해석함으로써 창세기 1장을 훼손하고 있다!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3일(음)간 있었지 3000년 동안 물고기 배 속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창조 기록에서도 요나 사건에서도 똑 같은 표현의 “일(음)”을 사용하고 있다. 성경의 인용이나 문법을 통해서만 보면 창조 주간의 하루도 요나의 하루도 다 100% 확실한 오늘 날의 하루지만 세상 지식을 받아들이면 수천 년도 되고 수백만 년도 되고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면 복음도 확실하지 않은 것이 되고 만다. 요나의 시험에 모두 합격하는 독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최우성 박사  
생리학

## 불필요한 타협



이 모든 타협의 슬픈 아이러니가 오히려 지난 반세기 동안 창세기 1-11장에 대한 진실이 점차로 입증 되도록 하였는데, 이는 가끔 무의식적인 진화론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 라이엘의 동일과정설 원리는 1970년대까지 지질학을 이끌었다. 그러나 유명한 영국 지질학자인 데렉 에이저(Derek Ager, 1923-1993)와 여러 사람들이 라이엘의 가설에 점차로 도전하였으며 많은 암석기록이 빠른 격변적 침식과 퇴적작용을 보여 준다는 증거들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은 많은 지질학적 퇴적물이 형성되는데 수반되는 시간을 현저하게 단축시킨다고 주장했다. 무신론자인 에이저(그의 글을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는 지질학이 라이엘에 의해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비전문가가 장황하게 본문을 벗어나 역사에 대하여 말하게 된 것에 대한 변명은 지질학이 현장을 관찰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 정치적 현실(역사)로 판단했던 이론가(동일과정 론자)들의 손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과거에 대하여 해석할 때 극단이란 말과 “격변적” 과정이라는 용어사용을 회피하도록 우리 자신들을 세뇌된 상태로 방치해 왔었다.

암석에 대한 “신격변론자”의 재해석은 “홍수 지질학”의 부활과 같은 시기에 발전되었다. 이 홍수지질학은 19세기 성서적 지질학자들과 젊은 지구 창조론의 기본 요

소와 아주 비슷한 관점으로 지구 역사를 보는 견해다. 이런 지구 역사관은 존 윌트컴(John Whitcomb) 박사와 헨리 모리스(Henry Morris) 박사의 창세기 홍수(1961)의 출판으로 드디어 세상에 진출하였다. 이 운동은 범위로 보면 세계적이 되었으며 과학적 모델의 세련미는 시간이 갈수록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다윈주의에 대항할 때 “지적설계” 논쟁방법을 택함으로써 공적 인 토의에서는 창세기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19세기 초에 자연 신학의 많은 글들과 함께 시도되었으며, “브릿지워터 논문(Bridgewater Treatise)”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여덟 권의 책으로 절정에 달했었다. 이 책들은 “성가대를 전도하는 (preaching to the choir: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는, 역자 주)” 태도였으며 무신론과 이신론 쪽으로 움직이는 문화에 대하여 어떤 저지도 못하였다. 사실 지구나이에 대하여 타협하였으며, 기독교를 옹호하는데 성경을 무시함으로써, 실제로 그들은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데 기여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

유명한 무신론적 진화론자이며 하버드대학의 생물학자인 언스트 메이어(Ernst Mayr)는:

*다윈주의적 혁명은 지구가 불과 6,000년 전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이 분명해 졌을 때 시작됐다. 이 발견은 모든 눈사태를 시작하게 했던 작은 눈덩이였다.*

메이어가 (다윈의 이론이 아니라) 지구의 나이가 불신의 눈사태의 시작이었다고 한 것은 옳았다. 그러나 그가 수백만 년이라는 생각이 과학적 연구의 “발견”이라고 말한 것은 틀렸다. 오히려 그것은 암석과 화석을 해석하는데 사용된 반성경적이고 철학적인 가정들이 맺은 열매였다. 역사 연구를 해 보면 라플래이스(Laplace)는 개방적인 무신론자, 버폰, 라마르크, 워너, 허튼은 이신론자나 무신론자였으며, 큐비에, 윌리엄 스미스, 라이엘이 이신론자나 애매한 유신론자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타협된 기독교인들의 생각에 영향을 준) 이 사람들은 진리에 대하여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추구한 자들이 아니었다.

라이엘, 버폰 등이 썼던 것들은 전형적으로 허튼이 주장한 것들이었다. 허튼은 “지구의 지난간 역사는 지금 일어나는 것이 관찰되는 것으로 설명해야 한다... 지구에서 자연적이지 않는 것은 어떤 힘도 개입시켜서는 안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를 제외하고는 어떤 활동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고 주장했다. 지질학자들은 오늘날 알려진 자연과정만 가지고 추론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암석들은 눈여겨보지도 않고 초자연적인 창조와 창세기의 유일한 전지구적 홍수를 제외시켜 버렸다.

허튼이 창조와 홍수와 지구나이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과 일치하는 압도적인 지질학적 증거를 볼 수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난 200 년 동안 같은 전제로 세뇌된 모든 지질학과의 학생들 이 그 증거들을 볼 수 없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들 역시 많은 젊은 지구 창조과학자들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세뇌되어 있었다.

## 창조과학 강의를 마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세례받고, 체험하며 살고 있었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었기에 진화론이 나의 자아에, 무의식 속에 이렇게 자리잡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이 진실인 양 나의 뇌리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증거가 되어 몰아내고 말씀 하나하나가 더 사실로 다가 왔습니다. - 이미원 / 미주성결대학교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평신도로서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역자로서 사역을 해오면서, 부끄럽게도 한 번도 진화론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끔 특정한 교회에서 창조 과학에 관한 세미나를 하게 되면 그것 또한 교회 성장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목을 들으면서 창조와 진화에 대해 얼마나 내 자신이 무지했으며 관심 없이 사역을 해왔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화의 반대가 하나님이라고 하신 교수님의 말씀에 심각한 기독교의 현실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영국 교회의 쇠퇴의 원인이 진화론의 출현으로 인해 일어 났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앞으로 교회가 미래를 준비 하는데 있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본과를 공부하는 동안 제가 살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동성애 결혼 반대를 위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동성연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를 범하는 행위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뿌리가 진화론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심각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어서 그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며,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과도 단순히 이 문제는 동성연애자의 결혼을 허용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성경의 역사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진화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 이한욱 / 미주성결대학교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진 나도 진화론과 창조론을 결합한 이상한 이론들에 눈이 가곤 했었다. 학교에선 진화를 가르치고 교회에선 창조를 가르치는데 어느 한쪽으로

만 기울어 질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 강의를 듣고는 비록 학교에서 가르치지만 진화론을 결코 받아들이 수 없음을 깨달았다. …… 나는 진화론자들이 창조론을 깰 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눈 앞에 두고 그런 주장을 펴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들이 펴는 주장에 대한 증거들이 대부분 거짓이고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애초에 진화론을 위한 결과를 낸 것 들이라는 데 충격 받았다. 진화는 창조를 반대한다기 보다는 하나님 그 존재를 부인한다. - 임병구/ 미주장신대학교

성경적이라고 믿고 있었던 수 많은 가르침들이 진화론의 영향으로부터 생겨난 것들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한번도 질문을 해보지 않았을까? 성경을 보면서 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향하여 진지한 질문을 던지지 못하였을까? 나의 신앙이 너무 형식적이고 진리에 대한 진지함이 부족하였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생활환경, 그리고 그 속에서의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솔직히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7C의 역사를 통해 죄악만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역사 속에서 성도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자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 박옥현/ 미주장신대학교

한 학기 동안 자연과학개론을 들으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선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이라는 생각지도 않은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와서 그런지 창조론이 그리 새롭게 다가오지 않았다. 어쩌면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것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 안에 본인인 나조차도 생각지 못한 진화론이 한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 주에 6일은 진화론적 교육환경 속에서 무비판적인 수용을 통해 나도 모르게 진화론은 과학적이어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단 하루인 주일 교회에서 창조론을 들으며 역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과 세상을 무의식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며 살았던 것이 내 모습이었던 것 같다. 진화론은 과학으로 인정을 하며 살고 창조론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았던 것 같다. 그런 내게 이 수업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각성해야 할 부분이 바로 내 안에 자리잡고 있는 진화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 박노현/ 미주장신대학교

7 월	2 - 5	창조과학 탐사여행 (감사한인교회 213-381-1390)
	6 - 8	창조과학컨퍼런스(시카고 헬로우십교회)
	13 - 15	빙하시대 탐사여행 (시애틀 형제교회, 213-381-1390)
	14 - 15	토랜스 은혜로교회 (최우성), CA
	19 - 21	창조과학 탐사여행 (서남교회, 213-381-1390)
	22 & 29	All Nations Church (김선욱), Vienna VA
	23 - 25	빙하시대 탐사여행 (샌디에고교역자협의회 213-381-1390)
8 월	26 - 28	창조과학 탐사여행 (개인탐사여행, 213-381-1390) 이재만
	27 - 29	빙하시대 탐사여행 (미주풍성한교회, 213-381-1390) 최우성
	30 - 8/2	창조과학 탐사여행 (필라델피아영생장로교회 213-381-1390)
	6 - 8	창조과학 탐사여행 (14차 유학생, 신학생 213-381-1390)
	6 - 8	창조과학 탐사여행 (커피브레이크 E.M. 213-381-1390) 김선욱
	9 - 11	빙하시대 탐사여행 (산호세 새소망교회, 408-727-5950)
	9 - 11	창조과학 탐사여행 (The View America Summer Camp 213-381-1390) 최우성
	13 - 16	창조과학 탐사여행 (지구촌교회)
9 월	13 - 15	창조과학 탐사여행 (타코마제일침례교회 E.M. 213-381-1390), 김선욱
	20 - 22	창조과학 탐사여행 (Global Vision Christian School 213-381-1390), 최우성
	23 - 30	창조과학 탐사여행 (일본인)이재만
	1 - 3	창조과학 탐사여행 (LA 온누리교회)
	2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7 - 13	창조과학 탐사여행 (안산동산교회)
	7 - 9	Church of Bethlehem (김선욱), IL
	9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12 - 14	빙하시대 탐사여행 (KPCA 서중노회 213-381-1390)
	14 - 24	일본방문(이재만)
	16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23	주님의영광교회(최우성), CA	
24 - 10/15	한국방문(이재만)	
25	햇볼트리니티 CEO 스쿨(이재만), 한국	
26 - 28	좋은씨앗교회(이재만), PA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 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43 W Olympic Blvd #300, Los Angeles, CA 90015  
Tel. 213-381-1390 Fax 213-381-9242 www.HisArk.com / hisark@gmail.com